



KOCHI자료 10-017

KOTRA가 선정한 2010년 중국경제 10대 핫이슈

KOTRA가 선정한

2010년 중국경제 10대 핫이슈

작 성

중국사업단 황 유 선 과장

중국사업단 정 다 은 대리

베이징KBC 박 한 진 부장

우한KBC 장 상 해 센터장

상하이KBC 김 명 신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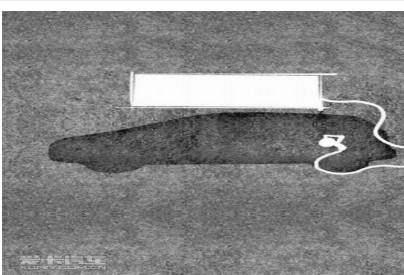
광저우KBC 오 영 주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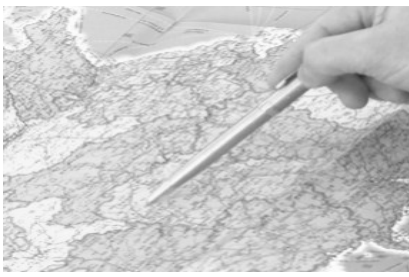
칭다오KBC 유 예 진 과장

KOTRA가 선정한 2010년 중국경제 10대 핫이슈

[요 약]	1
1. G2 시대 개막 – 급팽창하는 중국 경제	3
2. 세기의 '화폐전쟁'– 위안화 딜레마	5
3. 동시다발적 FTA – 봇물 터진 경제외교 성과	7
4. 대국굴기 선포식 – 상하이 엑스포	9
5. 산업정책 지각변동 – 7대 신흥전략산업	11
6. '트랜스포머' 차이나 – 권역별 개발정책 속속 출시	13
7. 세계의 공장 무색해진 경영환경 – 임금·물가·FDI 정책	16
8. 기업의 선택은 내륙시장 – 주요산업 내륙 이전	18
9. 중국에 부는 친환경과 웰빙 바람	20
10. 빅뱅 마켓, 중국 온라인 시장	23

[요약]

G2 시대 개막 - 급팽창하는 중국경제	
1	 ○ 중국은 2분기 이후 일본을 제치고 2010년 기준 세계 2위 경제대국 부상 전망 ○ 중국은 이어 미국을 맹추격 중이며, 향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 중국은 성장 속도 유지와 더불어 12·5 규획으로 내수시장 확대, 지역간 균형발전, 저탄소 성장, 신흥산업 육성 등 질적인 경제발전에 무게를 둘 계획
세기의 '화폐전쟁' - 위안화 딜레마	
2	 그림출처: 한국경제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둘러싸고 대립 확대 ○ 중국은 대미 달러 환율수준을 최저치로 유지하고 환율 제도를 개혁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급격한 절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위안화 절상은 중국 기업의 원자재, 설비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기업의 대 중국 수출 및 투자진출을 촉진 할 것임
동시다발적 FTA - 봇물 터진 경제외교 성과	
3	 그림출처: 매일경제 ○ 중국은 올해만 해도 아세안, 페루, 대만 등 동시다발적 FTA체결을 추진 ○ 중국의 FTA 체결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상당수 겹치므로 한·중 기업 간 경합이 치열해 질 것 ○ 한국은 중국과 FTA 체결 추진에 앞서, 중국의 FTA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관세철폐효과가 큰 서비스분야 진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제거에 힘써야 함
대국굴기 선포식 - 상하이엑스포	
4	 ○ 상하이 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0개국 참가, 총 관람객 7,308만명을 기록하면서 성공리에 치루어짐 ○ 엑스포 개최로 상하이 GDP는 5%p 상승, 장강 삼각주에 대한 투자가 40~5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관은 총 관람객 725만명, 평균 대기 관람객수 4000명, 평균 대기시간 4시간으로 최다 신기록을 수립, 한국관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6조 9986억원으로 추산 ○ 상하이 엑스포에서 소개한 도시녹화개념은 중국의 녹색시장 성장 및 저탄소 성장을 촉진할 전망
산업정책 지각변동 - 7대 신흥산업	
5	 ○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감·환경보호, 정보기술, BT, 첨단제조업, 신에너지, 신재료, 에너지절감형·신에너지 차량 제조업 등 7대 신흥산업을 장기육성할 계획 ○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에너지산업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12·5 규획 기간 중 대대적인 투자 예정 ○ 반면,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환경제품 등 분야에 대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돼 우리 기업들에게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6	'트랜스포머' 차이나- 권역별 개발정책 속속 출시  ○ 지역 균형 발전 및 내수시장 확대 정책에 따라 권역별 주요개발 계획이 2010년에도 속속 출시 ○ 장강삼각주, 충칭 양장신구, 선양경제구, 창지투개발 개방 선도구, 징진지도시권역 등은 향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개발 예정 ○ 권역별 개발정책으로 파생되는 신규 프로젝트 시장, 비즈니스 기회를 주시, 시장 선점에 노력해야 함
7	세계의 공장 무색해진 경영환경 - 임금·물가상승, 선별적 투자유치 정책  ○ 중국의 31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 선별적 FDI 정책으로 중국내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고물가 고임금의 이중고를 겪는 진출기업은 중국의 내수 시장에 주목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권역별 산업별 진출전략을 재정립하고, 노동 집약적 산업의 경우 내륙 이전을 적극 고려해야 함
8	기업의 선택은 내륙시장 - 주요 산업의 내륙이전  그림출처: SBS ○ 중국정부의 내륙지역 경기진작정책과 내륙지역의 높은 시장잠재력으로 연해지역 주요기업들이 내륙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하고 있음 ○ 2010년에는 TCL, HP, 유니레버 등 다국적기업이 내륙이전을 하였고, LS 전선과 한국타이어도 내륙 지역으로 생산라인을 확대하고 있음 ○ 정부의 정책, 높은 경제성장률 등 기회요인이 많지만 산업인프라 미비, 높은 물류비용과 원부자재 소싱의 어려움 등 위협요인도 공존
9	중국에 부는 친환경과 웰빙바람  ○ 중국인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및 웰빙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친환경 제품으로는 수성페인트, 투수성 보도블록, 벽지 등 건축 관련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웰빙 상품으로는 비타민, 유기농음료, 식물성 식용유 등이 유행 ○ 중국인들의 친환경, 웰빙마인드를 주목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더불어 기능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10	빅뱅 마켓, 중국 온라인 시장  ○ 2010년 중국 온라인시장 거래액은 4조 3400억 위안, 모바일 시장 거래액은 2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5배 성장 ○ C2C 시장에서 B2C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대형화·전문화 된 쇼핑몰이 확대되고 있고, 2·3선 도시 본격 성장 중 ○ 우리 기업은 복수플랫폼을 선정하여 다양한 채널로 온라인시장을 활용하고, 의류와 악세서리 외에 복수의 전략품목 선정해서 진출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1 G2 시대 개막 - 급팽창하는 중국 경제

□ 양적, 질적 성장에 성공

- 중국의 국내총생산액(GDP)이 2분기 연속 일본을 제치면서 2010년 연간 기준 세계 2위 경제대국(총량 기준)으로 부상할 전망
 - 2분기 : 中(US\$ 1조 3,369억) > 日(US\$ 1조 2,883억)
 - 3분기 : 中(US\$ 1조 4,154억) > 日(US\$ 1조 3,719억)
 - 1~3Q : 中(US\$ 3조 9,469억) < 日(US\$ 3조 9,674억)
 - 4분기 : 엔高로 일본 수출부진 → 中 > 日 예상
- 중국은 경제 글로벌 위기 이전의 과열이나 위기 과정의 급랭에서 벗어나 연착륙 중인 것으로 평가
 - 경제성장률이 1분기 11.9%, 2분기 10.3%(상반기 10.6%)에서 3분기 9.6%로 둔화 추세이나 기대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2010년 경제성장률은 전고후저(前高後低)의 형세를 뚜렷이 보이며 점차 낮아져 연간 10.5%에 달할 전망
- 한편, 2010년 중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된 상황에서도 견고한 펀더멘탈 유지
 - 중국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접어들자 4조 위안의 재정투자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즉각 발표('08.11.5), 시행
 - 이로 인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단기 국내수요와 내적 성장동력을 자극하며 공업 주도의 자본집약적 성장 시현
- 중국이 일본을 추월한데 이어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다는데 국제적 공감대 확산
 - 싱가포르 방문 중인 시진핑 국가부주석 "2010년 세계 2위 예상" 발언(11.15)
 - 英 스탠다드차터드銀 "10년 후 美 추월, 20년 후 미국의 2배"
 - 골드만 삭스 "중국경제 2040년 미국 추월"
 - "2년 후 구매력기준(PPP) 기준 경제력 美 능가" 전망도 제기

- 중국경제의 급팽창은 최인접국인 한국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요인
 - 수치 및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 같은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전망

- 정부는, 성장 속도 유지와 더불어 경제 발전구조 전환을 통한 질적인 경제발전에 더욱 무게를 둘 계획
 - 중국 정부는 12.5 기획 건의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균형있고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 구현에 둘 계획이라고 천명
 - 내수확대, 민생개선, 저탄소 성장, 신흥산업 육성 등이 기획의 주요 실천과제임
- 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을 둔화는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
 - 주민 소득 증대로 인한 소비 증가로 내수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가능
- 중국 내부적으로는 2020년에 세계 5대 강국에 진입하고, 2050년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도약할 계획
 -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국가경쟁력보고〉에서 2008년 기준 중국 국가경쟁력을 17위로 평가하고 향후 첨단기술 개발,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을 밝힘

2 세기의 '화폐전쟁'- 위안화 딜레마

□ 중-미 환율공방

- 미국이 연초부터 '위안화 저평가'를 문제 삼아 중국에 대해 포문을 열었고, 중국은 수긍할 수 없다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확대
- 미국은 자국 경상수지 적자 누적의 원인이 위안화 저평가 때문이라며 공격수위를 강화
 -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월 수출 진흥전략을 발표하고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으며, 위안화 평가절상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 정책적인 이유 외에도, 미국은 그동안 위안화 환율이 미 달러에 사실상 고정되어 있어 미 달러 약세 이후 위안화의 환율이 절하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음
- 중국은 대미 달러 환율수준을 연일 최저치로 유지하는 등 일부 '성의'를 보이면서도 급격한 절상은 불가라는 방침
 - 중국은 환율을 경제주권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단행할 방침
 - 내부적으로는 평가절상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장 큰 폭 또는 중폭 이상의 평가 절상은 중국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
- 양국의 대립은 G20 회의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든지 첨예화될 수 있음

□ 환율 전쟁의 결과 속

- 위안화 환율 문제는 순수 경제 및 통상문제라기보다는 정치영역의 문제로 확대된 지 오래이며 2010년도 예외는 아님

- 중-미 환율전쟁은 양국 모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기세이면서도 상대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만도 없는 미묘한 문제
 - 중국에서는 중-미 환율전쟁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확산

□ 시사점과 전망

- 위안화 환율변동은 글로벌 경제 뿐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진출 및 한-중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구도에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매우 복잡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핫 이슈임
- 위안화 환율 전망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이 현실적으로 대미달러 페깅시스템(pegging system)이 아닌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표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 뿐 아니라 對 기타 통화 환율 동향도 함께 살펴야 함
 - 대미달러 환율의 경우도 환율 흐름 그 자체보다는 중국의 수출과 실업 문제 연관성 등 환율 변동의 내외부적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함
- 위안화가 가시적인 평가절상 효과를 낸다면 우리 수출, 투자기업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기업의 원자재, 설비 수입이 확대될 것이며 특히 항공, 자동차, 제지 분야 수입수요가 확대될 수 있어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함.
 - 또한 부동산, 자산시장은 해외여유자금 유입으로 간접혜택을 볼 수 있어 관련 분야 대중국 수출 및 투자진출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

3 동시다발적 FTA - 봇물 터진 경제외교 성과

□ 배경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시장 접근성 향상, 산업고도화 촉진, 역내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FTA 체결 적극 추진
 - 2003년 6월 홍콩, 마카오와의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필두로 ASEAN, 칠레 등 인접지역 및 개도국 중심으로 FTA 추진

□ 2010년 중국 FTA 추진 현황

- 2010년은 중국이 양자 경제외교의 핵심 틀로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들이 봇물 터지듯 이어짐

주요 FTA	세부 내용
중-ASEAN FTA 전면 발효 (1.1)	- 인구 19억명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출범 - 중-아세안 6개 회원국 간 교역품목의 90%인 7천여 개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 FTA 체결로 양국은 교역확대 뿐 아니라 중국기업의 대 아세안 투자가 가속 폐달을 밟을 것으로 예상
중-페루 FTA 발효 (3.1)	- 상품무역에서 90% 이상 제품에 대해 단계별로 무관세를 시행 - 중국은 경공업 제품, 가전, 기계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페루는 농수산물, 광산물 등의 수출 증가 기대
중-대만 ECFA 체결 (6.29)	-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 전반에 걸쳐 총 806개 품목을 조기수확대상으로 합의 - 대만보다 중국의 개방 폭이 훨씬 더 큰 점이 특징
기타 추진중인 FTA	- 중-칠레 FTA 서비스무역협정 실시(8.1) - 중-스위스 FTA 공동연구 완료(8.13) - 중-GCC, 중-이탈리아, 중-아이슬란드, 중-노르웨이 등의 FTA 협상 진행 중

□ 시사점

- 중국의 FTA 외교 쟁결음은 한국에 두 가지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FTA 체결국이 한국과 겹치는 부분(아세안, 칠레, 페루 등)이 많아 해외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 중-대만 ECFA가 대만기업의 중국내수시장 진출기회 확대로 연결되면서 한중(또는 한중일) FTA 추진에 있어 새로운 전략적 판단이 요청
- 한-중 FTA 협상 전략
 - 중국의 속내를 간파해야
 - 중국의 FTA 추진 역사는 오래지 않지만 짧은 기간에 10건의 FTA를 교섭, 협상, 마무리하여, 경험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음
 - 현재 한중 FTA의 산업별 득실, 쟁점과 대책 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시도되었으나 중국의 FTA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한 실정으로, 중국이 체결한 10개의 FTA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의 전략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무역에 관심을
 -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이미 9%로 떨어져 있어 관세 철폐 효과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70% 가량이 원부자재와 중간재여서 관세 요인이 크지 않음
 - 반면 서비스 무역은 중국이 이제 막 개방을 시작하는 부분이며 앞으로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영역임
 - '숨은 규칙'을 찾아내자
 - 중국은 겉으로는 대외 개방됐지만 속으론 여전히 잠겨있는 '대외개방 대내폐쇄'형 시장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
 - 한중 FTA를 추진한다면 업종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 요인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함

4 대국굴기 선포식 - 상하이 엑스포

□ 2010 상하이엑스포 개요

- 지난 5월 1일 개막된 상하이 엑스포가 10월 31일 폐막식을 끝으로 184일간의 대장정을 마칩
 - 역대 최대규모인 190개국 참가, 총 관람객 7,308만명으로 하루 평균 관람객수 40만 명, 일일 최다 관람객 103만 2800명 기록
- 관광수입 800억 위안 달성, 신규 일자리 63만 개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
 - 엑스포 개최로 창장삼각주지역의 고속도로, 철도, 항공, 숙박, 요식업 관련 산업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예상
- 상하이 엑스포는 상하이 GDP를 5%p 끌어올리고 창장삼각주에 대한 투자를 40~50% 전인할 것으로 예상
 - 상하이 GDP에서 3차 산업 비중이 60%까지 증가할 전망
 - 창장삼각주 지역의 경제일체화 가속화

□ 대국 경제구조로의 변화

- 상하이 엑스포 관련 직접 투입비용은 총 286억 위안이며 이외에도 기타 부대비용 100억 위안 투입
 - 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3000억~4000억 위안 투입
- 과거 시카고엑스포, 오사카엑스포가 미국과 일본의 경제에 불을 붙인 것처럼 상하이엑스포도 중국 경제성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상하이시 2010년 1~9월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한 113억 41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3차산업은 92억 8600만 달러로 전체의 81.9% 차지

□ 상하이엑스포가 한국에 끼친 영향

- 한국관은 총 관람객 725만명, 평균 대기관람객수 4000명, 평균 대기시간 4시간, 전통공연 2200회, 연면적 7684㎡, 상주인력 430명, 홍보도우미 110명 등 한국관 최다 신기록을 수립
 - 국가 및 한국제품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2012년 여수엑스포홍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 KOTRA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하이엑스포 한국관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6조 9986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3년간 대중국 수출 6조 3667억원 증가, 중국 관광객의 추가 입국에 따른 매출이 631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가 인지도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해 핸드폰과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식품류 등 소비재 수출에 양호한 환경 조성

□ 향후 전망

- 상하이엑스포가 도시를 주제로 하면서 많은 국가관이 도시녹화개념을 국가관에 적용했으며, 다양한 녹색전략 소개
 - 상하이는 장강삼각주 지역의 메갈로폴리스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시녹화, 녹색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
 - 향후 10년간 중국내 녹색건축시장 규모는 약 5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중국은 저탄소를 뛰어넘어 제로탄소화를 지향할 전망, 청정에너지원 및 폐수, 폐기물처리 분야 진출 유망
 - 창장삼각주 경제 일체화의 진전으로 유통업, 2선 도시 부동산개발, 연계 도로망 확충 프로젝트 참여 유망

5 산업정책 지각변동 - 7대 신흥전략산업

□ 신흥전략 산업 개요

- 원자바오 총리가 2009년 9월 신흥전략산업 발전을 강조한 이후, 금년 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부, 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국무원의 신흥전략산업 신속 육성에 관한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 발표
 - 이 '결정'에 따라 조만간 신흥전략산업 발전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프로그램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신흥전략산업이 장기 육성될 예정
 - 신흥전략산업은 에너지절감·환경보호, 정보기술, BT, 첨단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약형·신에너지 차량 제조업 등 7대 분야임
 - 현재 중국의 신흥전략산업 GDP 비중이 전체의 2%미만이나 이번에 발표된 '결정'은 신흥전략산업의 GDP 비중을 2015년 8%, 2020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릴 계획

7대 신흥전략산업	주요 분야
에너지 절감·환경 보호	에너지 고효율, 환경 보호, 재활용
정보 기술	RFID 등 사물의 인터넷, 차세대네트워크, 3세대이동통신, 신형평면디스플레이, 고성능집적회로, 첨단소프트웨어
BT	바이오의학, 바이오농업, 바이오제조
첨단제조업	민간항공, 해양공정장비, 첨단지능장비
신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신소재	특수기능성 소재, 고성능 복합 소재
에너지 절약형·신에너지 차량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신흥전략산업 프로그램은 중국이 2009년 초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의 과잉생산능력 조정을 위해 발표한 '10대 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 이후 최대의 산업조정책이 될 전망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결정'의 세부적인 시행 법률과 규칙 등에 따라 현재 중국 전체 에너지산업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에너지산업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매김
 - 산업표준 및 제품 기술표준 체계, 시장진입 심사관리절차 등의 표준 규정과 세제 및 금융지원 정책, 에너지분야 개혁이 세부시행 규칙의 주요내용이 될 것
- '12·5' 계획 기간에 7대 산업을 중국 경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이어질 전망
 - 4조 위안 프로젝트 이후 중국은 7개 신흥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할 예정
- 신흥산업이 중국 경제에서 주목 받은 기간이 짧아 산업 관련 시장 시스템 부족
 - 기술비용 등을 감안한 높은 제품가격에 비해 대체품이 많아 시장에서의 수용도가 낮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
- 해당 분야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진출 증가나 기술 및 설비 수입증가 등 예상
 -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환경제품 등 분야에 대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돼 우리 기업들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을 전망

6 '트랜스포머' 차이나 - 권역별 개발정책 속속 출시

□ 재조립되는 중국 경제권

- 중국정부는 최근 창장삼각주지구규획(2010.6), 충칭양장신구규획(2010.6) 등 권역별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업그레이드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권역별 도시화 및 산업 발전을 급속히 진행

□ 2010년 주요 권역별 개발계획 내용

-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 2010년 5월 국무원 승인을 받은 '창장삼각지역 지역규획(長江三角洲地區區域規劃)'에 따라, 상하이시,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 등 3개 성의 16개 도시를 핵심지역으로 선정, 지역 간 통합발전을 추구, 장기적으로 범창장삼각주 발전하도록 유도할 계획
 - 2015년까지 상하이를 중심으로 난징, 항저우를 양 날개로 삼아 도시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 첨단 제조업, 신흥전략산업 등 3대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
- 충칭 양장신구(兩江新區)
 - 상하이 푸둥신구와 텐진 빈하이신구와 더불어 전국 3대 부성급(副省級) 지역 개발계획 중 하나로 향후 서부대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양장신구는 내륙 개방형 경제시범구로 건설될 예정인 충칭시 북부신구와 중국 최초 내륙 보세항구인 량루춘탄(兩路寸灘) 보세항구를 포함한 지역으로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친 발전전략을 통해 공업생산액 1조위안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교통, 전력장비(원자력, 풍력발전 등), 신에너지자동차, 국방군수업, 전자정보산업 등 5대 전략산업을 배치하고 국가급 연구개발기지, 중대형 과학연구기지와 산업화 기지, 재난예방 및 데이터 중심의 3대 전략성 혁신기능을 배치할 계획

○ 선양(瀋陽)경제구

- 2010년 4월 중국 국무원은 선양경제구를 '국가신형공업화종합개혁시범구(國家新型工業化綜合配套改革試驗區)'로 지정
- 선양경제구는 선양과 안산(鞍山), 푸순(撫順), 번시(本溪), 잉커우(營口), 푸신(阜新), 랴오양(遼陽), 테링(鐵嶺) 등 주위 7개 도시를 포함하는 공업경제구로, 2020년까지 선진장비 제조기지, 고도가공 원료공업기지로 기존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산업 다원화를 이뤄 '국가신형산업기지 중점 성장구'로 만드는 것이 목표

○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

- 지린성(吉林省)의 창춘시(長春市), 지린시(吉林市)지역과 두만강(圖們江)지역을 연변지역 개발개방의 핵심지역으로 만들고 동북아 경제기술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
- 2020년까지 2,800억위안(약 457조원)을 투자해 창춘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단일경제벨트로 묶어 동북아 물류거점을 구축할 예정

○ 징진지도시권역(京津冀都市圈區域)

-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河北省)에 해당하는 권역의 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징진지도시권역구역계획(京津冀都市圈區域規劃)'은 곧 국무원의 승인을 받을 예정
- 베이징은 교통, 운수 및 전자통신산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도소매, 요식업을 위주로, 톈진은 전자통신, 자동차, BT 및 현대의약, 장비제조, 신에너지 및 친환경설비 등 선진제조업 위주로, 허베이성은 원자재 중화학공업기지, 현대화된 농업기지, 레저휴양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 시사점 및 전망

○ 신흥 프로젝트 시장 및 비즈니스 기회 주시

- 권역별 개발 계획으로 파생되는 신규 프로젝트 시장에 주목하고, 내륙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비즈니스 환경 업그레이드로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 주목 필요

○ 지역별 산업 구조 재조정

-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제조업 위주로 발달한 중국의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살린 핵심산업 및 신흥산업 개발이 가속화

○ 지역간 격차 해소, 균형적 경제 성장 기대

- 동부 연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달한 중국경제의 축을 여러 권역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해소되고 고른 경제성장을 이루게 될 것임

7 세계의 공장 무색해진 경영환경 - 임금 · 물가 · FDI 정책

□ 중국 경영환경과 구조, 급격한 '체질변화' 시작

- 개혁개방 이후 저임금, 저물가를 무기로 각종 임가공, 경공업이 발달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던 중국의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

□ 2010년 전국적인 임금인상 물결

- 현재까지 중국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 가운데 총 30개 지역이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
 - 최저임금은 20% ~ 40% 사이의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꾸이저우(貴州)성 (27.7%), 칭하이(靑海)성 (28.8%) 등 내륙지역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보임
 - 월 최저임금이 가장 비싼 곳은 상하이(1120위엔), 시간당 최저임금이 1위는 베이징(11위엔)으로 상하이, 선전, 항저우, 닝보, 광저우 등은 처음으로 1천 위엔을 돌파
 - 중국의 성장방식의 전환, 생활수준이 향상,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불가피한 추세로 분석됨.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4.4% 기록

-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월대비 0.8%p 상승한 4.4%로 2008년 9월의 4.6%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통계에 따르면 채소, 과일, 식용유 등을 위주로 한 식품가격이 10.1% 상승해 CPI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74%에 달함
 - 이미 올해 5월(3.1%)에 정부관리목표(3%)를 넘어선 물가의 상승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그 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

□ 선별적 FDI 정책으로 전환

- 중국 국무원과 재정부는 11월 23일 '외자기업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가세 징수에 대한 통지(關於對外資企業征收城市維護建設稅和教育費附加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 12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도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가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기존 세금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예정
 - 한국투자기업이 밀집하여 있는 산둥성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외자기업이 R&D 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설비 구매에 발생하는 세금 면제 및 환급 정책 실시 공표
 - 또한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방향이 첨단기술 산업, 친환경 산업 등 중국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골라받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시사점

- 임금 상승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임금 시대의 종언으로 해석되며 고물가는 기업 경영에 이중고로 작용할 전망
- 또한, 개방정책 이후 외자기업의 진출에 커다란 제약이 없던 과거와는 달리 기술함량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단순 임가공,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화공업 등은 앞으로 투자유치 허가를 받기 어려워질 예정
- 우리 기업은 중국을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기지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력이 확대되고 있는 내수시장에 주목하고, 권역별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고물가, 고임금에 대비한 진출 전략을 재정비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내륙이전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 권역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고, 차별화되고 기술력 있는 제품으로, 지역별 구체적인 진출 방향 수립 필요

8 기업의 선택은 내륙시장 - 주요산업 내륙 이전

□ 중국정부, 주요 산업의 내륙이전 적극 장려

- 중국정부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륙지역 경기진작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최근 연해지역 주요기업의 내륙이전이 활발해지고 있음
 - 대표적 내륙이전 기업으로는 Haier, Media, TCL 등 중국 대기업과 유니레버, 폭스콘, INTEL 등의 다국적기업이 있음
- 주요기업의 내륙이전 이유는 정부 장려정책 외에도 내륙지역이 연해에 뒤지지 않는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높기 때문
 - 최근, 중국의 GDP 성장률이 9%에 머물고 있으나, 내륙지역은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함

□ 내륙이전 주요 유형 및 사례

- 2010년 내륙으로 이전한 대표적 기업으로는 TCL, HP, 유니레버 등이 있음. 이들은 원가절감, 내수시장 확보, 인력수급, 생산거점 확보등 목적으로 내륙을 주목하고 있음
 - 특히, 경제규모가 크고 입지 조건이 좋은 후베이성 우한, 쓰촨성 청두, 충칭 등이 주요 이전 거점이 되고 있음.
-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대만 기업의 내륙이전이 활발함. 일부 한국기업도 내륙이전을 고려하고 있음
 - 2010년 한국기업의 내륙이전 사례로는, 후베이성 국영기업인 홍치전선을 인수하고 우한에 R&D센터를 설립한 LS전선과 내륙 생산거점으로 충칭을 결정한 한국타이어를 들 수 있음.
 - 대만의 폭스콘의 경우 우한을 중부거점으로 삼고 향후 20만명의 인력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대표적 내륙이전 기업 현황〉

기업명(국가)	내륙이전 목적	이전지역	업종	이전시기 (년도)
TCL(중)	원가절감 및 내수시장 확보	후베이성 우한	가전	2010
텐마(天马)(중)	원가절감 및 내수시장 확보	후베이성 우한	LCD	2010
폭스콘(대만)	원가절감 및 기업우대 정책 활용	충칭, 후베이성 우한	PC 등	2010
HP(미)	내수시장 확보	충칭	PC 등	2010
Intel(미)	인력수급 및 기업우대 정책 활용	쓰촨성 청두	PC 등	2009
유니레버(미)	원가절감	안후이성 허페이	생활용품	2010
한국타이어(한)	내수시장 및 내륙 생산거점 확보	충칭	타이어	2010
LS전선(한)	내수시장 및 내륙 생산거점 확보	후베이성 이창	전선	2010

자료원 : 인터넷 자료종합

□ 시사점

-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과 연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 대규모 SOC사업 시행, 주민 구매력 증가 등의 요인으로 향후 내륙이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내륙으로의 이전 활성화는 우리기업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 주요 대기업의 이전으로 부품소재 및 설비 투자 증가 예상
 - 고용 및 소득 증가는 소비시장 확대로 연결될 전망
- 단, 내륙지역은 투자환경, 정부부분의 개방도 등 일반적 경제산업 인프라가 연해지역에 비해 약하다는 위험요인을 고려해야 함. 또한, 내륙이전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 부담과 원·부자재의 소싱이 어려운 점 등도 인지해야 함

9 중국에 부는 친환경과 웰빙 바람

□ 2010년 친환경 제품 트렌드

- 중국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생활수준이 제고되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친환경 수성페인트, 친환경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중국시장에서 특히 인기
- 친환경 수성페인트
 - 중국의 신축아파트는 인체 유해용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최소 1년은 거주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인식 확산
 - 수성페인트는 유기용제, 벤젠, 메틸벤젠, 자이렌 등 유독성 물질이나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
 - 10대 수성페인트 브랜드는 대다수가 중국 브랜드이나 독일 메펠트와 영국 듀릭스 등도 현지에서 인기
 - 거주용 공간에 벽지를 바르기 보다는 페인트 벽을 선호하는 중국인의 거주 습관에 부합하여 향후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 위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
- 친환경 투수성보도블록
 - 도시화 부작용으로 환경 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도시 노면 기능성 보강 및 배수 시스템 건설에 대한 필요성 다대
 - 투수성 보도블록은 빗물이 블록에 스며들거나 통과되어 지하수 부족현상과 토양오염을 해결하고, 저장된 빗물이 다시 증발하여 온도 및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미생물 생존공간을 제공
 - 연안지역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늘어나 중국산 생산이 대폭 증가했지만 제품의 품질과 규격 통일이 시급
- 친환경벽지
 - 기존의 페인트 벽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 향균, 방음, 방수 등에도 좋은 친환경 벽지 수요가 증가

- 과거 수요가 고급 아파트, 호텔, 별장 등 제한적이었는데, 최근 친환경붐이 불면서 2~3년간 일반 주택가의 수요가 크게 증가
- 중국 소비자들은 부직포 벽지, 직물 벽지, 종이 벽지 등 천연원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벽지제품 선호
- 중국은 '10대 산업진흥계획'의 방침에 부합하도록 친환경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
 -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등 친환경 부문 위주 외자유치 확대로 순환경제 시스템 적극 발전 도모

□ 2010년 유행한 웰빙 상품

- 중국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비타민 소비 증가
 -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발병 이후 중국내 건강식품 수요가 늘면서 비타민 시장이 빠르게 성장
 - 중국 1인당 평균 비타민 섭취량은 여전히 세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시장잠재력이 거대
- 유기농음료 향후 5년간 9% 지속적 성장 예상
 - 중국 음료기업인 와하하(娃哈哈)의 영양음료인 양양쾌선(營養快選), 일본 산고급녹차 등이 소비자의 웰빙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여 성공
 - 최근 중국에서 유기농 제품 생산을 시도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 기름도 웰빙, 건강유 소비자 증가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물성유 소비대국으로, 현재 중국 식물성유시장은 외자기업과 국유기업이 독과점 형성
 - 웰빙,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소비가 점차 증가

□ 시사점

- 중국인들의 친환경, 웰빙 마인드 주시 필요
 - 중국에 진출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 친환경, 웰빙은 더 이상 가미해야할 요소가 아니라 필수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친환경성과 웰빙을 고려해야 중국 진출이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일본산 녹차제품이 전문 웰빙숍이나 건강식품 전문점을 중심으로 공략한 것처럼 좁은 시장이라도 제대로 확보해 고정수요층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
- 제품은 기능 보장, 식품은 안정성 보장
 - 중국에서 건축자재 및 식품과 관련하여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중국인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1순위로 기능과 안정성 고려
 - 중국진출시 기능 및 안정성을 기본적으로 완비해 공략하는 자세 필요

10 빅뱅 마켓, 중국 온라인 시장

□ 폭발적인 중국의 온라인쇼핑몰 성장 속도

- 인터넷의 기술발전 및 보급률 확대와 함께 온라인 시장 급부상
 - 2010년 6월 말 기준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31.8%, 1.4억명이 온라인거래 사용자, 2010년 중국 온라인시장 거래액은 4조 3400억 위안 규모로 예상
 - 중국 온라인 쇼퍼는 2008년 79백만, 2009년 1.21억명, 2010년 6월 1.4억명으로 급성장하여 2012년에는 2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한 모바일 쇼핑 시장
 - 2010년 2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5배 급성장했으며, 2012년까지 향후 2년 동안 15배 이상 급팽창할 전망

□ 대형화 · 전문화된 쇼핑몰 약진, 2 · 3선 도시 본격 성장 궤도

- 소비자들의 결제 안정성과 브랜드 정품에 대한 신용을 중시하면서 B2C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오픈마켓, 전문 쇼핑몰이 유행
- 2 · 3선 도시의 온라인쇼퍼 증가율, 온라인 구매액 증가율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4개 특급도시를 크게 상회하여, 중국의 중서부 내륙도시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시사
- 선호하는 구매 품목은 의류, 가구 · 가정용품, 도서 · 음향, 디지털제품, 화장품 순이며 성별, 지역별로 선호하는 구매 품목의 차이가 있음
 - 의류는 지방 중소도시 구매비중이 높고, 가구 · 가정용품, 도서 · 음향제품은 대도시가 높음
 - 여성은 화장품, 가구 · 가정용품, 도서 · 음향제품 구매가 많고, 남성은 컴퓨터,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게임류 구매가 많음

□ 향후 전망

- 현재 극히 소수업체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나, 시장 참여자 확대로 다원화 경쟁시대로 진입 예상
- 온라인 쇼핑 업계의 경쟁 격화로 향후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업간 합종연횡과 온-오프라인 기업 융합 가속화 전망
- 신규 B2C 업체수 급증, 대형 제조업체의 B2C 병행, C2C 업체의 B2C 진출 등으로 B2C는 C2C를 대체하는 주류 온라인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와 환율불안 여파로 전통적 컨테이너식 대량무역이 충격을 받으면서, 소액위주의 B2B 소거래가 해외무역 부문에서 점진적으로 활성화

□ 시사점

- '온라인 한국관' 참여 확대로 신용(정품 보증)과 브랜드 효과 극대화 필요
 - '한국관' 참여 방식으로 우리기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언권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 복수 플랫폼 선정으로 진출 경로 다양화 노력 기울여야
 - 현재 우리기업의 중국 온라인 쇼핑시장 진출경로는 알리바바(阿里巴巴)와 타오바오(淘宝)로 국한되어 있으나, 종합몰과 전문몰이 동시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을 선점 노력 필요
- 의류와 악세서리 외에 복수의 전략품목 선정해야
 - KOTRA가 선정한 6대 유망품목인 인테리어, 영유아·아동용품, 패션시계, 남성용화장품, 디지털제품, 소형가전제품 등 진출품목 다변화 필요

2010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세계시장의 기회와 위협	2010.1
10-002	CIS 레저시장, 이것이 대세!	2010.1
10-003	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2010.2
10-004	2010년 세계시장의 뉴노멀 트렌드	2010.3
10-005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2010.3
10-006	독미 강소기업에게 배운다	2010.4
10-007	요르단, 중동의 의료허브 꿈꾸다	2010.4
10-008	요르단, 중동의 의약품 수출 교두보 된다	2010.4
10-009	불황을 이긴 세계시장의 우수 중기제품들	2010.4
10-010	아시아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2010.5
10-011	부상하는 아시아 유망 시장&산업	2010.5
10-012	미국 건강보험 개혁과 국내 업계 진출확대 방안	2010.6
10-013	글로벌 주요국 3D 산업 현황과 진출방안	2010.6
10-014	신재생에너지로 변화하는 서남아	2010.6
10-015	일본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2010.7
10-016	중국의 해외 M&A 사례와 시사점	2010.7
10-017	중양아시아 건설중장비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2010.7
10-018	러시아 산불 피해 동향 조사	2010.8
10-019	신흥시장의 알파기업에서 배운다	2010.8
10-020	태국 정부조달 이렇게 접근하라	2010.8
10-021	한-페루 FTA 활용 진출전략	2010.8
10-022	한-EU FTA 발효에 대한 EU 바이어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반응 조사	2010.8
10-023	해외사례로 보는 모바일비즈니스 성공 비결	2010.10
10-024	인도 최대의 축제, 디왈리 특수 활용방안	2010.10
10-025	최근 원화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시장 동향	2010.10
10-026	18억 할랄 시장을 잡아라	2010.10
10-027	인도의 반덤핑제재 현황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0.11
10-028	두바이 모라토리엄, 그 후 1년	2010.11
10-029	신흥시장 40억 저소득층에 주목하라	2010.12
10-030	GMS(메콩강유역) 개발사업 국별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2010.12

□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최근 대한수입규제전망과 2010 전망	2010.2
10-002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	2010.3
10-003	G-20 출구전략 논의 동향 및 전망	2010.3
10-004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체결과 그 영향	2010.4
10-005	러시아 Skinhead 테러주의	2010.4
10-006	한,중,일 3국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및 성공사례	2010.5
10-007	한국-러시아 앞으로 20년을 대비하라	2010.5
10-008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PIGS 국가별 변화 양상	2010.8
10-009	주요국 기업의 CSR 활동 사례	2010.11

□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중동의 미개척 시장 시리아	2010.1
10-002	오바마 취임 1년, 평가와 전망	2010.1
10-003	일본 글로벌 기업의 전략 변화와 시사점	2010.2
10-004	도요타 리콜 사태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파급효과 분석	2010.3
10-005	G20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점유율 변화 동향 및 전망	2010.3
10-006	2010년 1분기 KOTRA-SERI 수출종합지수	2010.3
10-007	2010 美 USTR 무역장벽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0.4
10-008	2010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4
10-009	떠오르는 녹색강국 중국시장 집중조명	2010.4
10-010	일본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	2010.4
10-011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심해유전개발 프로젝트 동향	2010.5
10-012	유럽발 경제위기와 진출기업 동향	2010.5
10-013	내전종식 후 1년, 스리랑카의 새로운 기회를 점검하다	2010.5
10-014	2010 콜롬비아 대선동향	2010.5
10-015	칠레 OECD 가입과 국내업체 시사점	2010.5
10-016	태국 시위사태 현황과 전망, 경제 파급 영향	2010.5
10-017	녹색시대를 앞서가는 세계시장의 강소기업들	2010.6
10-018	일본 신성장전략 보고서	2010.7
10-019	2010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7
10-020	최근 세계시장 현황과 우리 수출시장의 특이동향	2010.7
10-021	이슬람 최대의 종교행사 라마단(금식월)과 비즈니스 시사점	2010.8
10-022	미국의 대이란 포괄적 제재법 발효에 따른,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2010.8
10-023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에 따른 주요국 시장 동향	2010.9
10-024	최근 엔고현상에 따른 우리 수출시장 동향	2010.9
10-025	디자인에서 '리'자인 시대로	2010.10
10-026	2010년 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10
10-027	美 환율법안 추진에 따른 국내업체 파급효과 전망	2010.10
10-028	일본 소비자 시장의 최신동향	2010.10
10-029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업체 시사점	2010.11
10-030	베트남 동화 평가절하와 국내 업체 영향	2010.11
10-031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0년 수출전망	2010.11
10-032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우리 수출시장 동향 점검	2010.11
10-033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	2010.11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KOTRA가 바라본 중국 성시별 비즈니스 기회와 진출전략	2010.2
10-002	세수로 보는 2010 중국경제	2010.4
10-003	KOTRA가 선정한 올해의 차이나 키워드	2010.4
10-004	상하이 엑스포 참가효과와 경제적 가치	2010.4
10-005	상하이엑스포 이후 중국, 이렇게 바뀐다	2010.4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6	아시아, 대양주 녹색시장 현황 및 협력방안	2010.5
10-007	중국 내수 신흥유망시장 공략 설명회	2010.7
10-008	올해 중국 히트상품은 이것	2010.7
10-009	주목해야 할 중국의 2,3선 도시들	2010.7
10-010	중-대만 ECFA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0.7
10-011	독일기업 사례로 본 중국시장 진출 전략	2010.10
10-012	10년의 대개발, Mega시장으로 떠오른 中 서부	2010.10
10-013	상하이 엑스포 200% 활용한 우리기업	2010.10
10-014	중국 온라인 시장, 빅뱅 마켓을 잡아라	2010.11
10-015	상하이 엑스포 국가브랜드 제고효과와 경제적 가치	2010.11
10-016	미래 중국시장, 우리기업 성공 전략	2010.12
10-017	KOTRA가 선정한 2010년 중국경제 10대 핫이슈	2010.12

□ FDI Them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PIIGS 국가 경제위기 동향 및 외국인직접투자 영향 분석	2010.2
10-002	글로벌 기업의 CVC 운영현황 및 투자동향	2010.3
10-003	글로벌기업의 일본내 사업 철수, 축소 동향 및 투자유치 시사점	2010.3
10-004	중국 위안화절상이 국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3
10-005	'10년 1분기 미국·일본·유럽 대한투자현황 및 향후전망	2010.6
10-006	해외 주요국의 투자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2010.6
10-007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0.7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중동 국부펀드의 동향 및 투자유치 전략	2010.10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지역별 진출여건	2010.1
10-002	2010年 1000大 수출유망상품	2010.1
10-003	캄보디아 투자유의사항 가이드북	2010.1
10-004	KOTRA 중장기 경영전략 G-LEAD 2020	2010.1
10-005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미국편)	2010.2
10-00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중국편)	2010.2
10-007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일본편)	2010.2
10-00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베트남편)	2010.2
10-009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	2010.3
10-010	Living in Korea Q&A	2010.2
10-011	해외 전력시장 진출 가이드	2010.2
10-012	중동 · 북아프리카 비즈니스 & 문화 가이드	2010.2
10-013	[ITS]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4	[바이오의약품]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5	[태양광]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6	2009 중국시장 진출확대사업 보고서	2010.2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17	2009 일본시장 진출확대사업 보고서	2010.2
10-018	중국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	2010.3
10-019	한-아부다비 비즈니스 포럼 종합 결과 보고서	2010.3
10-020	IPP(민자발전)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 케냐)	2010.5
10-021	주요국 Smart Grid 정책/시장 조사	2010.4
10-022	'09년 해외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0.4
10-023	그린리포트 (Vol 7. 2010 Spring)	2010.4
10-024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Network 2010	2010.4
10-025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유럽편	2010.4
10-026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미주편	2010.4
10-027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아시아/대양주편	2010.4
10-028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중동/아프리카/CIS편	2010.4
10-029	북미 온라인 대형 유통망 진출 전략	2010.4
10-030	2009 외국인투자유증부즈만 연차보고서	2010.5
10-03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9	2010.5
10-032	러시아 건설시장 진출가이드	2010.5
10-033	중동 소매유통시장 공략포인트	2010.6
10-034	주요산업별 국가 투자유치 경쟁력 분석	2010.6
10-035	주요산업별 FDI 프로젝트 동향	2010.6
10-036	우리기업의 업종별 해외투자지도	2010.6
10-037	SW수출강국도약-이스라엘성공사례분석	2010.6
10-038	2009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0.6
10-039	중동CIS 의약품 시장동향	2010.6
10-040	중동CIS 의약품 시장동향	2010.6
10-042	그린리포트(Vol 8. 2010 Summer)	2010.6
10-043	인도 주별 시장특성과 비즈니스 기회	2010.6
10-044	글로벌 IT 100대 기업 협력현황 분석(상)	2010.7
10-045	글로벌 IT 100대 기업 협력현황 분석(하)	2010.7
10-046	몽골 투자 가이드	2010.7
10-047	국가 및 산업 브랜드 맵	2010.6
10-048	20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결과보고서	2010.7
10-049	스위스 그린산업을 가다 2010	2010.8
10-050	국내주요기관 해외네트워크 2010	2010.9
10-051	2010년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10.9
10-052	주요국 통신시장 진출가이드(상)	2010.9
10-053	주요국 통신시장 진출가이드(하)	2010.9
10-054	주요국 IT부품시장 진출가이드	2010.9
10-055	주요국 SW.정보보호시장 진출가이드(상)	2010.9
10-056	주요국 SW.정보보호시장 진출가이드(하)	2010.9
10-057	주요국 10대 유망 소프트웨어	2010.9
10-058	2009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0.9
10-059	그린리포트(Vol 9. 2010 Autumn)	2010.10
10-060	부품소재 대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2010.10
10-061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안내	2010.11
10-06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0.11
10-063	2010년 상반기 해외 FDI 동향	2010.11
10-064	해외진출종합가이드 (개정판)	2010.12
10-065	중동의 미개척 시장을 가다	2010.11
10-066	주요국 IT유통망 진출가이드	2010.11
10-067	Guide to Living in Korea 2011	2010.12
10-068	韓國生活 가이드ブック 2010	2010.12
10-069	브라질 이러닝 시장동향	2010.12
10-070	칠레 이러닝 시장동향	2010.12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0.1
10-002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10.1
10-003	"물류센터를 활용한" 북미대형온라인유통망진출전략설명회	2010.3
10-004	세계 전력 시장 진출 설명회	2010.3
10-005	앞으로 5년, 미리보는 중국시장과 사업기회	2010.3
10-006	[ITS]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전략 설명회	2010.3
10-007	[바이오의약품]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전략 설명회	2010.3
10-008	인도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성공전략	2010.3
10-009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3
10-010	GATE 글로벌 바이오기술 투자세미나	2010.3
10-011	KOTRA 중남미클럽 창립 포럼	2010.3
10-012	2010 글로벌 채용박람회	2010.3
10-013	KOTRA-Alibaba 온라인 한국 상품관 설명회	2010.4
10-014	제 2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5
10-015	2010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0.5
10-016	GE 투자설명회	2010.5
10-017	Global Project Plaza 2010	2010.5
10-018	Global Project Plaza 2010 - Asia Session	2010.5
10-019	Solvay Venture Initiative	2010.6
10-020	인도 비즈니스 포럼 창립 세미나	2010.6
10-021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2010.6
10-022	중동CIS 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2010.6
10-023	중남미 클럽 2차 포럼	2010.6
10-024	〈핵심고객 초청〉 중남미 시장진출 설명회	2010.8
10-025	〈핵심고객 초청〉 CIS 시장진출 설명회	2010.8
10-026	〈핵심고객 초청〉 인도,베트남 시장진출 설명회	2010.8
10-027	중남미 이력서 진출전략 설명회	2010.9
10-028	Merck Venture Initiative	2010.9
10-029	KOTRA 중남미클럽 3차 포럼	2010.9
10-030	제 3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9
10-031	EU 상표 · 디자인 출원 설명회	2010.10
10-032	Global Marine Tech 2010 세미나	2010.10
10-033	제 2회 국제 카본 포럼	2010.10
10-034	한-EU 그린산업 컨퍼런스	2010.10
10-035	제 2회 한-덴마크 신재생에너지 컨퍼런스	2010.10
10-036	2010 한-중 지재권(IP) 보호전략 포럼	2010.10
10-037	북미 · 유럽 온라인유통 설명회	2010.10
10-038	Green IT: Display/LED 2010	2010.11
10-039	신시장, 신기회 미개척 전략지역 투자진출 설명회	2010.11
10-040	중국, 베트남 해외투자전문가초청 설명회 개최	2010.11
10-041	제 3회 해외진출지원기관 워크샵 개최	2010.11
10-042	2010 해외 투자 우수사례집	2010.12
10-043	GMS 개발사업 진출전략 설명회	2010.12

- KOTRA가 선정한 2010년 중국경제 10대 핫이슈 -
- KOCHI자료 10-017 -

발행인 : 조 환 익
발행처 : KOTRA
편집인 : 곽 동 운
발행일 : 2010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201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